

# 2004 베이루트 월든벨로의 글 2004년 출처 공동행동

베이루트 2004 : 불의와 전쟁에 저항하는 지구적 투쟁의 이정표

(Beirut 2004 : A Milestone in the Global Struggle against Injustice and War)

월든 벨로

(이 글은 2004년 9월 17일~19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국제 반전 반세계화 운동 전략회의 가운데 '현 국면의 개요'부분에서 발제문으로 발표되었다.)

- 번역 : 정영섭(사회진보연대, 파병반대국민행동상황실)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여기 베이루트에 모였다. 상황은 복잡적이다. 이라크에서 미국은 점점 더 깊숙이 베트남과 같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데, 2003년 3월 20일 침공 이후 미군 병사들의 사망 숫자는 9월 첫째주에 1000명을 넘어섰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직도 시오니스트 장벽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이 하루에 1킬로미터 비울로 건설중이다. 1년전 9월 14일에 여기 모인 우리들 중 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5차 각료회의의 결렬을 축하하면서 멕시코 칸쿤 컨벤션센터 앞에서 기쁘게 춤쳤다. 오늘, 기업주도 세계화의 최고 기구인 WTO는 지난달에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무장해제를 촉진시키도록 고안된 '제네바 기본골격' 합의를 가지고 제 발로 다시 돌아왔다.

또한 몇주전 뉴욕에서 우리는 50만명 이상이 조지 W. 부시와 그의 전쟁정책을 대중적으로 거부하며 거리에서 시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오늘 여론조사는 여전히 조지 부시가 존 케리를 10%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선거까지 이어지면 그 결과는 향후 몇년 동안 세계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지들, 이스라엘의 침략과 미국의 개입에 대한 찬란한 저항의 역사를 가진 이 역사적인 도시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때, 미래는 어느 쪽으로도 결정되지 않았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더 많은 사람들이 베이루트에 와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했다. 오늘 여기 우리 회의의 규모, 폭 그리고 다양성은 우리 운동의 강점과 힘을 분명히 나타낸다. 우리가 오늘 어디에 있는지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지난 수십년간의 우리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주변부화로부터의 행진

10년 정도 이전에 우리 운동은 주변부화되었다. 1995년 WTO의 설립은 세계화가 미래의 흐름이고 그것에 반대하는 이들은 산업혁명 당시에 기계 도입에 반대하여 싸운 러다이트들과 같은 운명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는 징후처럼 보였다. 세계화는 처음부터 번영을 가져올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에 의해 인도된 초국적 자본이 세계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뿌릴 것이라는 약속을 누가 반대할 수 있었는가?

그러나 운동은 1990년대 동안 체제가 (운동을)경멸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 굳건히 서 있었다. 그 때는 세계의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엔진-미국 헤게모니-이 계속 지속될 운명으

로 보였다. 그리고 기업의 이윤논리에 의해 주도된 무역과 금융의 자유화와 탈규제화가 위기, 국가들 안팎에 걸친 광범위한 불평등, 점증하는 세계적 빈곤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고하게 예상되었다.

1997년의 아시아 금융 위기는 세계 자본의 흐름에 대한 통제력을 제거하는 것의 불안정한 충격을 갑작스럽고 잔인하게 증명했다. 실제로, 위기가 1997년의 치명적인 여름 몇주동안 빈곤선 이하의 태국 민중 1백만명과 인도네시아 2천2백만명에게 가져오는 것보다 무엇이 더 야만적일수 있었겠는가?

아시아 금융위기는 민중들들을 각성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차갑고 냉엄한 현실을 보게한 중대한 사건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그 현실중의 하나가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가 100여개의 개도국과 과도기경제 국가들에 부과한 자유시장 정책이 그들에게 성장과 번영, 평등의 선순환이 아니라 경제 침체와 빈곤, 불평등의 악순환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2001년에 9.11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2001년은 신자유주의 경제의 시장 근본주의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해였다-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아르헨티나 경제를 파멸시켰고 미국에서는 금융자본 주도의 탈규제화된 세계자본주의 모순이 투자자 재산 4조 6천달러-미국 GDP의 절반-를 날렸다. 이는 경기침체와 증가하는 실업의 시대를 알렸고 세계 중심 자본주의 경제는 오늘날까지 회복되지 못했다.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에서 위기로 옮겨다니는 동안 민중들은 거리와 작업장, 정치무대에서 그 파괴적인 논리에 대항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했다. 1999년 12월에는 WTO 3차 각료 회의를 결렬시키기 위해 시애틀 컨벤션센터 안의 개도국정부의 저항과 5만명이 넘는 시위자들에 의한 거리투쟁이 결합되었다. 지구적인 항의시위는 세계 경제 지배체제의 두가지 다른 축인 IMF와 세계은행에 대해, 비록 덜 드라마틱하긴 했지만 그 정당성을 또한 손상시켰다. 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은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쿠아도르, 볼리비아에서 새로운 정부권력을 만들어냈다. 한국농민 이경해씨가 바리케이트에서 자결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건인 칸쿤의 5차 각료회의는 제2의 시애틀이 되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이 작년 11월 마이애미에서의 시민사회 동맹과 개도국정부는 워싱턴으로 하여금 서구에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통해 강제하려고 위협한 무역과 금융, 투자의 급진적 자유화라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으로부터 퇴각하게 만들었다.

## 제국에 대한 투쟁

지구적인 정의와 평등을 위한 싸움은 우리 운동의 추진력의 하나가 되었다. 다른 하나는 군사주의와 전쟁에 대한 투쟁이다. 제국주의 개입에 대항하는 운동에 있어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좋은 시기가 아니었다. 민족해방 투쟁은 쇠퇴하고 동력을 잃었거나 세계 많은 곳에서 타협하게 되었다. 물론 예외들이 있다. 남아공에서는 ANC(아프리카민족회의)가 권력을 잡았고 팔레스타인에서는 1차 인티파다(봉기)가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다. 레바논에서는 불과 여기에서 몇킬로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기지에서 폭탄공격으로 241명의 미해병대가 사망한 이후 미국이 1983년에 물러났고 그 이후 십수년간 이스라엘이 점차로 쫓겨나고 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소말리아에서는 모가디슈에서 미 특수유격부대를 파괴하여 클린턴 행정부로 하여금 1993년에 군사적 개입을 끝내도록 강제했

다.

세계화의 이데올로그들은 가속화된 세계화가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온다는 환상을 조장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 운동은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불안정화 효과가 갈등과 불안정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기업적 논리, 세계화는 반대자들에게 대한 타격, 천연자원 통제, 시장 보호의 시대를 선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가 옳다는게 증명되었지만 우리의 위치를 획득하기까지 얼마간이 걸렸다.

9.11사태와 아프가니스탄의 내부정치는 우리를 여전히 너무 혼란시켜서 미국의 침략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소위 테러와의 전쟁은 '절대 군사 패권(Absolute Military Supremacy)' 또는 펜타곤이 황실수설하는 '완전한 지배(full Spectrum Dominance)' 추구를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내 명백해졌다.

2002년 후반과 2002년 초에 운동은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져서, 계획된 이라크 침략에 저항하여 2003년 2월 15일에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명을 동원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지구적 세력이 되었다. 우리는 미국과 영국의 침략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점령을 불법화하고 침략자들이 이라크에서 국제법과 제네바협약의 많은 조항들을 뻔뻔스럽게 위반하는 것을 확실히 어렵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2003년 2월 15일의 시위 사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오늘날 세계에 두개의 수괴파워만이 남아있는데 미국과 세계시민사회가 그것이라고 했다. 나는 거기에다 정의와 평화 세력이 제국, 피, 테러, 탐욕의 현대적 실현체인 미국을 이긴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이겠다.

#### 이라크, 저항, 운동

우리 운동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제는 많고 우리의 임무는 방대하다. 몇가지만 들여보자. 우리는 미국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몰아내야 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증하는 학살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같은 강대국가들에게 법 준수를 강제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이라크 해방투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집단이 되기 전에 가야할 몇가지 길이 있다.

이를 설명해 보자. 지난 몇달 동안 이라크에서는 두개의 규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바그다드 바깥 아부 그라이브 감옥에서 행해진 체계적인 성학대가 폭로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4월 팔루자에서의 봉기이다.

세계를 분노하게 했고 대부분의 미국인을 부끄럽게 했던 아부 그라이브 추문은 이라크에서 미국의 정당성의 마지막 남은 한조각마저 벗겨버렸다. 이라크 남자, 여자, 어린이 전사들이 워싱턴의 식민군대의 엘리트인 미국 해병대를 물리친 팔루자 봉기는 이라크 해방전쟁의 전환점이었다. 팔루자 이후 나자프와 라마디같은 다른 도시들에서 봉기가 잇따랐다. 그것은 이라크 저항이 사담 후세인 체제의 잔존세력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대중적이고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 시점에서 이라크의 축소판인 라마디와 팔루자의 상태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최근 기사를 읽어보겠다. "이전의 바트당 충성과 주변에서 정부구조를 건설하려는 미국의 노력은...붕괴했다"고 쓰고 있다. 대신에 두 도시와 안바 주(州)의 많은 지역들이 "...민병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미군은 사막 가장자리의 엄중하게 보호된 요새에 주로 갇혀 있다. 미국의 미미한

영향력은 장갑차와 레이저 유도폭탄으로 신중히 침략하는 것을 통해 주장된다... [그러나] 폭탄 공습조차 [민병대] 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수십명의 시민 사망에 대해 미국을 비난한다”

동지들, 워싱턴이 마침내 이라크 저항에 의해 패배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이상 질문이 될 수 없다. 워싱턴은 패배할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 이 불가능한 상황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이다.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세계 평화운동에 있어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저항세력에 의한 날마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이라크에) 매달려 있다. 이 상황에 서라면 이라크 민중 저항의 승리는 확실히 하나의 사실에 의해 촉진될 것이다. 그것은 1968년 구정 공세 [베트남전시 음력설을 계기로 한 베트남의 대대적 반격] 를 전후하여 수천명이 매일 거리를 점령한 것과 같은 강력한 지구적 반전운동의 출현을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점령 반대가 지구적인 정서이고 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환멸이 미국 대중 다수에게 현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 [강력한 반전운동] 은 물질화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이라크 민중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때, 국제 평화운동은 본궤도에 오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2004년 3월 20일 시위는 전세계적으로 수천만이 계획된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여 시위한 2003년 2월 15일보다 상당히 작은 규모였다. 정책결정자에게 충격을 주는 그러한 국제적 대규모 압력-각 도시들에서 연이어 나날이 수십만명이 시위하는 것-은 적어도 아직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주된 원인은 국제 평화운동의 중요 세력이 이라크 저항을 정당화하는데 주저하기 때문이다. 그들 [이라크 저항세력] 은 누구인가?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지지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이라크로부터의 조건없는 군사적 정치적 철수 주장에 있어 점점 더 제기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직시하자. 정치적인 무기로 자살을 이용하는 것은 많은 활동가들을 계속 괴롭힌다. 자살폭탄 공격이 F-16공격에 맞먹는 억압받는 민중들의 수단이라고 자랑스럽게 옹호하는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의 말과 같은 진술들은 그들을 반박한다. 또한 다음을 직시하자.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저항의 많은 부분이 비종교적이기보다는 이슬람적인 것에 의해 고무된다는 사실은 많은 서구 평화 활동가들을 괴롭힌다.

그러나 민족해방이나 독립을 위한 깨끗한 운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케냐의 마우마우운동, 알제리의 FLN, 베트남의 NLF의 일부 수단에 의해 역시 반박되었다. 진보주의자들이 잊어버리는 것은 민족해방 운동들이 주로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정치적 지지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진정 외부로부터, 우리같은 진보주의자들로부터 원하는 것은 내부세력이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에 기반하여 진정 민족적인 정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불법적인 점령권력을 철수시키는 국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들의 가치와 담론에 맞추어진 해방 운동이 권력을 잡게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행동을 암묵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그들이 포기할 때까지, 많은 평화 활동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을 부과하는 페러다임안에 계속 갇히게 될 것이다.

명확히 해보자. 우리는 조건을 단 해결책을 장려할 수는 없다. 미국을 대신하여 유엔이 들어와야만 미군과 연합군이 철수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유일한 원칙적인 입장은 미국과 연합군의 군사적 정치적 세력의 조건없는 철수이다. 이상 끝(Period).

그러나 만약 이라크의 미래가 계속 어느쪽으로도 기울지 않는다면, 이라크 저항은 이미 지구적 평형을 변형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이다. 미국은 부시가 이라크에서의 승리를 선언한 2003년 5월 1일 이전보다 약해져 있다. 냉전에서 승리한 대서양 동맹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데, 주로 이라크에 대해서 분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과 필리핀은 이라크로부터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강제되었고 태국은 지금 조용히 이를 따르고 있다. 이는 미국의 고립을 심화시켰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불안정한데 미국의 영향력은 카불 교외에까지만 미친다.

현재 미국이 제일의 적으로 간주하는 전투적인 이슬람은 지금 동남아시아, 남아시, 중동에 걸쳐 왕성하게 확산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에서 거대하고 대중적인 반신자유주의 반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내에 존재하거나 또는 정부로 하여금 신자유주의 자유시장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후고 차베스는 제국주의의 뒷마당에서 정면으로 도전했고 베네주엘라 민중의 조직된 지지에 의해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차베스와 베네주엘라 민중에게 더 많은 권력을!

미국은 그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제국이 앓았던 치명적인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제국주의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이 그것이다. 위대한 쿠바혁명이 체 게바라에 호응하는 우리의 역할은, 이라크에서의 미국, 팔레스타인에서의 미-이스라엘 축, 콜롬비아에서의 미국 개입에 저항하여 국제적 연대운동을 만들거나 확장시키는 것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국가와 지역 내에서 미제국주의 존재에 저항하는 투쟁을 만들거나 재고무시키는 것에 의해서 이러한 과도확장의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북아 미군기지나 동남아시아에서 소위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미군이 새로 주둔하는 것에 대항하는 투쟁에 동아시아의 우리가 재헌신해야 하는 것이다.

#### 새로운 지구적 경제질서를 향하여

제국주의와 전쟁에 대한 투쟁은 우리 투쟁의 하나의 전선이다. 다른 하나는 세계 경제 지배를 변혁하는 투쟁이다. 왜냐하면 사회와 환경의 붕괴의 원천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근원인 지구적 자본주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 도전은 세계은행, IMF, WTO와 같은 기구들의 권한을 단순히 박탈하는 것을 넘어선다. 물론 그것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우리가 칸쿤에서 그 토대에 큰 타격을 가했다고 생각한 WTO가 최근 제네바에서 부활한 것을 보라.

낡은 체제를 우리가 해체하더라도, 과감하게 새로운 체제를 위한 우리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상상하여 민중들이 이에 동의하게 하는 것이 도전과제이다. 기존체제 이데올로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새로운 지구적 질서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원칙들은 존재한다. 근본적인 원칙은 경제, 시장, 질주하는 사회 대신에, 시장이- 위대한 헝가리 학자 칼 폴라니의 이미지를 사용해보면- 사회속에 "다시 끼워져야(reembed)"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공동체, 연대, 정의와 평등의 가치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 수준에서 세계 경제는 탈세계화되거나, 기업 이윤의 왜곡되고 파괴적인 논리가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세계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세계경제에 참여하는 것이 지역과 국가경제를 붕괴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전망과 원칙이 여기에 있다. 어떻게 각 사회가 이러한 원칙과 프로그램을 그들의 가치와 리듬, 특성에 맞게 고유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느냐가 문제이다. 우리를 포스트모던이라 부르라. 그러나 우리 운동에서 중심은 신자유주의와 국가사회주의 양자에서 공통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누구에게나 맞는 신발을 없다는 확신이다. 그것은 더 이상 '대안'의 문제가 아니라 '대안들'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정의, 주권, 다양성 존중의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건설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없을 것이다.

## 두가지 도전과제

다시 이라크에서 미군과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우리의 긴급한 임무로 되돌아가서 끝을 맺도록 하자.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다음 며칠동안 우리의 약점을 다루기 위해 모였다.

우리가 다룰 도전과제 중 하나는 자발적인 행동, 국제 행동의 날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유지되는 연대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이다. 적들은 세계적 수준에서 매우 잘 조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수준의 조정과 협력에 대응하는 것 이외에 우리는 선택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민주적 실천을 존중하는 전문성으로써 이에 대응해야 한다. 실로 우리는 우리의 민주적 실천을 강점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그것에 맞서야 한다.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다른 하나의 도전과제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지구적 운동과 아랍, 이슬람세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운동 사이의 정치적 문화적 격차를 메우는 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가 아랍과 무슬림 동지 대부분을 테러리스트나 테러리즘의 후원자로 묘사하는 노력을 통해 철저히 활용한 격차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의 지속을 허락할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베이루트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이다. 세계 운동과 아랍운동이 빈틈없이 유기적인 연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업주도의 세계화와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투쟁에서 이길수 없을 것이라고 실로 나는 얘기하겠다.

동지들, 투쟁의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여기 베이루트에서 앞으로 며칠동안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냐에 의해 영향받을 것이다. 우리는 전진할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또는 후퇴할 것인가? 대답은 세계 곳곳에서 여기에 온 300명이 넘게 등록한 참가자들 각자에 달려 있다. 나는 신중히 자부하고 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선의가 거기 있고, 차이에 대한 관용이 거기 있고 불의, 억압,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통합된 행동을 성취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한다.

\* 월든 벨로는 2003년 '생존권 상(Right Livelihood Award)'을 수상했다. 그 상은 대안 노벨 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벨로는 방콕에 위치한 리서치 조직인 '남반구 초점(Focus on the Global South)'의 소장이고 필리핀 대학의 사회학과 공공행정 교수이다.